

사람과 책의 연결고리 '사서'

동대문도서관 사서 이명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동네에 있던 작은 공공도서관이었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학창시절 성적은 형편없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빌 게이츠가 가진 유일한 취미는 독서였습니다. 굴지의 IT 기업 수장이 된 후에도 매일 밤 한 시간 이상은 꼭 독서를 했을 정도죠. 뿐만 아니라 1년에 2주 간은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는 특별한 휴가를 가진다고도 합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처럼 존경받는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다독습관 덕분일 것입니다.

도서관은 독서를 즐기는 이들이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찬 도서관은 그야말로 지식의 산실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책들이 분류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꽂혀있다면 그저 창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책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바로 '사서'입니다.

사서는 중학생들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학교도서관에서, 혹은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를 만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서가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

니다. 사서를 책을 대출하고 반납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사서가 하는 일의 전부일까요? 그 외에 사서가 어떤 일을 할까요?

▼ 사서가 하는 일은? 대출과 반납만 담당한다? NO!

-도서관 책 수집 및 정리

-정보 서비스 업무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과 도서관 이용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은 필수!

책의 대출과 반납은 사서가 하는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부터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서관의 책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책을 수집할까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구입할까요? 혹은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만 구입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사서는 책을 구입할 때 도서관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절대 아무 책이나 사지 않는 것이지요.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연령대는 어떤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읽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이 데이터를 토대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한 책은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청구 기호'를 붙여 분류합니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이 쌓여있는 창고가 아닌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지요.

도서관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도 사서의 역할입니다. 도서관에서 '중학생 필독도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추천 도서'와 같은 게시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 또한 사서의 몫입니다. 사서의 업무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일이지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도서대여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명운 동대문도서관 사서는 “예술분야와 인문학을 접목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듣고 예술분야와 인문학분야의 책을 대출하는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서에게 필요한 자질은?

정보 선별 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핵심!

수많은 정보로 가득한 도서관

▶ 정보 선별 능력은 필수!

매일 도서관 이용자와 소통

▶ 의사소통능력이 중요!

도서관에는 수많은 정보자료가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헤맵니다. 따라서 사서에게는 정보 선별 능력이 필수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서는 매일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를 만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찾아주기도 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겠지요. 도서관 사서를 꿈꾸는 학생 중 쾌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학생이라면 도서관 이용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서가 되려면? 사서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사서자격증 취득은 기본!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사서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교사자격증 취득 필요

사서가 되려면 반드시 사서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년제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전공하면 준사서 자격증이, 4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등을 전공하면 정사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 발급은 사서가 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또 다른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사서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자 한다면 사서자격증뿐만 아니라 교사자격증까지,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사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분명한 만큼, 향후 진로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 **사서, 이것만은 알고 하라!** 적극성, 의사소통능력 갖춰야

사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 NO!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사서가 일하는 도서관은 아주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서 또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이명운 동대문도서관 사서는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을 떠올려봅시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다양한 강사를 섭외하고,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책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사서. 사서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서는 도서의 대출과 반납만 담당하는 사람’,

‘사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직접 도서관 화프로그램을 기획해보거나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보길 바랍니다.